2025.10.24

Macro Comment

완화기조 유지되나 속도가 문제, 총알도 문제

흥국거시경제 **김진성** / (02)6742-3533 / jskim@heungkuksec.co.kr

-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한은기준금리 2.50%에서 유지
- 경기, 물가흐름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 내외금리차 축소 및 환율대응이 우선 고려사항
- 금융불균형 우려로 한은 금리인하 지연될 가능성 높으나 26년 최종금리 2.0% 전망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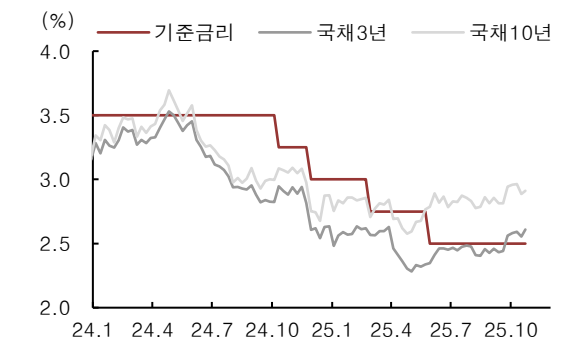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유동적이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

금융통화위원회는 예상대로 한은기준금리를 2.50%에서 동결했다(금리인하 소수의견 1인). 향후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르면, 6명(총재 제외)의 금통위원 중 금리인하 의견이 8월 5명(동결 1인)에서 4명(동결 2인)으로 줄었다. 완화 기조의 후퇴보다는 금리인하 시기(속도)에 대한 판단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한은의 체크 포인트를 1) 경기의 하방 위험, 2)물가 흐름, 3) 금융안정 상황 등 세 가지로 정리하면 최근 국내 경제여건은 중립적이다. 경기는 점진적 회복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0%대 저성장국면에 있고, 대외여건에 따라 상·하방 위험이 공존한다. 금리인하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가는 2% 목표에서 안정적으로 통화정책 입장에서 중립이다. 금융안정성은 금리인하에 걸림돌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강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금리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높아졌고, 내외금리차도 좁아지고 있다. 11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이전보다 낮아진 걸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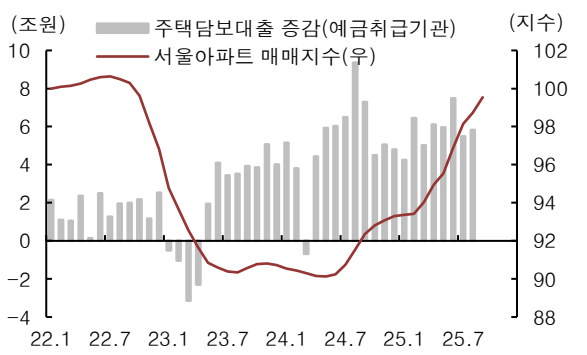
대미 무역협상이 완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물 경기와 외환수급에 민감한 영향이 잠재해 있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안정화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관망적 입장이 적절해 보인다. 연준의 금리인하가 10월, 12월 연속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더라도 한은은 느리게 움직일 공산이 커 보인다. 한은의 완화적 스탠스는 변함이 없으나 총알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만 최종금리 2.0% 전망은 유지한다.

그림 1 **한은 기준금리와 국채수익률**



자료: FRED,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주택담보대출 증감과 주택매매가격지수**



자료: FRED,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Heungkuk 흥국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흥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흥국씨앗체는 흥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흥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흥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

Heungkuk
흥국증권

□ 주소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14층)
(리서치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6층)
□ 전화번호 영업부 대표 02)6742-3635
□ 팩스 영업부 대표 02)739-6286